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화장하는 여학생

라이너, 아이셰도우, 뷰러, 마스크라, 블러셔, 입술 화장까지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학교에 온다. 진 양은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 ‘아빠 보인다’ 등의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듣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맨 얼굴은 창피한 일’ 이라니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을 빌려 ‘여자 친구들은 모두가 화장을 안 하면 밖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친구는 일찍 일어나서 등교 전 40분 동안 화장을 하기도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대부분의 여학생이 맨 얼굴로 등교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한다고 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사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초등학생 42.7%, 중학생

73.8%, 고등학생 76.1%가 색조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 화장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이 ‘맨 얼굴’로 등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초·중·고교 여학생의 일반적인 화장 풍조와는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이 그것이다. 일종의 저항적 사회운동의 성격은 먼 ‘탈코르셋 운동’은, 화장을 포함한 여성의 외모 치장을 ‘여성이기에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성차별적 노동이자 의무’라 비판하고, 짙은 화장이나 긴 생머리,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고 갖고 있던 화장품을 부수거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꾸밈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시선에 길들여진 존재이기를 거부하는 이 운동은 대단히 신선하다. 그러나 “우린 아름다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 모든 여성들에게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가 하면 동참하지 않는 여성을 ‘흉자’ 등의 비속어로 비난하는 일부 ‘운동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꾸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성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하나의 본능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본능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다. 또 여성의 외모 치장을 ‘성차별적 꾸밈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은 순전히 자기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본인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탈코르셋’은 강요할 성격의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초·중·고교 여학생들의 새빨간 입술연지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만이라도 입술연지만큼은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바람일까?

청춘특특



윤지연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해 성분들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중저가의 ‘스트리트 브랜드’(Street Brand) 제품이다. 이들은 ‘자연을 만나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자연이 가진 생명의 힘을 믿습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피부에 좋은 자연적 성분을 사용했음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일부는 브랜드 이름에 ‘skin’ ‘food’ ‘nature’ ‘face’ 등 피부에 안전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정말 안전할까?

화장품 분석 어플(‘화해’)과 화장품 성분 사전에 사용해 알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일부만 이야기하자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던 화장품들 중 피부에 양보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선 크림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성분들로 널리 알려진 20가지 유해 성분들 중 발암물질 등이 일곱 가지나 들어가

있었다. 중저가의 브랜드가 아닌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의료신문에서 백화점 주요 브랜드 10곳의 스킨·로션에 피해야 할 성분 스무 가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화장품 전 성분을 표시해주는 어플로 확인했던 사례가 있다. 그 브랜드들에는 총 90개의 제품에 유해 성분이 무려 361개나 포함되어 있었다. 화장품 하나당 평균 4.01개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처럼 고가의 화장품들 역시 비싼 만큼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비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스무 가지 유해성분은 PEG(폴리에틸렌글리콜)와 향료, 페녹시에탄올, 파라벤, 합성 착색료, 트리에탄올아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소르빈산, 미네랄오일, 옥시벤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발암 물질, 독성 물질 등으로 체내에 축적되어 두통, 헛기증, 색소 침착, 피부 과민, 피부 건조, 탈모, 여드름, 피부 노화 등의 원인이 된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상 문제

의 원인이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성분들의 위험성이 큰데도 다수의 화장품 업체들은 그러한 성분들이 함유된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다. 그와 함께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으나 보상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피부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 시중의 ‘모든’ 화장품들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마케팅의 노예로 전락하여 단순히 고가의 화장품, 입소문 난 화장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성분을 알고 ‘내 피부’를 위해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유해 성분들의 이름을 간단히 숙지해 두고 화장품 구매 시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이마저 힘들다면 화장품 분석 어플이나 ‘화장품 성분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합리적 소비를 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보자.

社說

광주 민간 공항 ‘조건 없는 이전’ 환영한다

우리는 기뻐 있을 때마다 광주 공항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광주 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통합은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이를 실현할 경우 광주·전남 양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시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 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통합 문제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풀어나갈 첫 번째 핵심 과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 자 사설) 윤장현 시장 역시 올 초 대승적 차원에서 양 공항 통합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다행히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 혁신위원회도 잇그제 “민간 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국토 서남권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며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했다. 이로써 무안 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멈춰 버린 정부 투자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광주공항과의 통합 후 무안공항 시설 보완 방침을 고수하면서 제4차 공약개발 종합계획(2011~2015)에 이어 제5차 계획(2016~2020)에서도 무안공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광주 공항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인 광주전남 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내 광주공항 이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양 당선인이 취임 후 긴밀한 협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근본 해법 전향적 협의를

남북이 오는 8월 중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상봉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대상자가 남과 북 각각 100명에 그쳐 실행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남북은 잇그제 적십자회담을 열고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봉 규모는 과거 수준에 머물렀고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적은 어제 5만7000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500명의 1차 후보자를 선정했다. 한적은 이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2차 후보자 250명을 선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북측과 생사 확인

절차를 거쳐 100명을 최종 선정한다.

컴퓨터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고령의 상봉 신청자들이 이번에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직접 참관했지만 상당수는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해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상봉 신청자만 1329명에 이른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가족·친척들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산가족들의 고통회가 심각하고 매년 3000여 명이 상봉을 꿈꾸어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100명 정도씩 만나는 현재 방식으로 그들의 한과 아픔을 풀어주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산가족 상봉만 큼은 남과 북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無等鼓

김종필 전 국무총리(JP)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JP까지 타계하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른바 ‘3김(金)’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JP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인간적 매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이 많다. 이낙연 총리는 조문 후 “김 전 총리의 품오나 멋이나 식견에 놀 압도되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JP는 굉장히 낭만적이다. 음악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긴다”고 평했다.

이런 평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JP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 왔다.

그는 생전에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반려자 박영숙 여사 장례 후 묘비명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사무사(思無邪·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무항산이무항심(無恨産而無恨

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을 치국(治國)의 근본으로 삼아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 진력하였거늘 만년에 이르러 연구심이 지 팔십구비(年九十而知 八九十非·나이 90에 생각해 보니 지난 89년이 모두 헛된 것 같다)라고 탄(嘆)하며 수다(數多·술한)한 물음에는 소이부답(笑而不答·별다른 말 없이 그저 웃다)하던 자·내조의 덕을 베풀어 준 영세반려(永世伴侶)와

함께 이곳에 누웠노라.”

‘나이 90에 생각하니 모두가 헛된 것 같다’고

돌이켰던 JP. ‘온갖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미소짓던’ 그가 ‘영원한 반려자와 함께 누웠다’고 애뜻한 마음을 드러낸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한다.

정오대는 JP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지만 엇갈리는 평가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은 하지 않았다.

고인은 이미 갔지만 그가 남긴 긍정적인 측면의 유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후세들의 몫일 것이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기 고



이동범
수필가·전 광주교총 회장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당을 가질 수도 없다. 진보와 보수의 평가기준도 교육 현장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행복’과 ‘혁신’의 가치를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누구나 미래의 아이들이 탈라진 학교 안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원한다. 그들은 극한의 경쟁 속에서 공부할 잘 해야만 대접받는 한국의 교육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과 혁신 외에도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 ‘인성’ ‘민주시민’ ‘창의 예술’ ‘평등’ ‘교육 복지’ ‘평화’ ‘무상 교육’까지 거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온갖 좋은 단어를 내세웠다.

그때 보수는 ‘삼선(三選) 저지와 전교조 배제’, ‘학력 신장’, ‘자사고·정시 확대’ 같은 지역적인 구호를 외쳤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득한 상황에서 보수는 좀 더 세로워야 했다.

상당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 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교육 가치를 구현할 구체적인 정책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어느 일간 신문에 의하면 이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학습량 축소’ ‘각종 시험 폐지’ 정책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적당히 가르치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안 보니 당장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가르치는 책’만 하다면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기 위해 점점 더 확원으로 가야 한다. 수학 같은 공부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도 그렇다. 진보 교육 체제에서 갈수록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에 손을 놓을수록 사교육의 세력은 커지기 마련이다. 경제력에 따른 학력차 또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행복 교육이란 ‘18세까지만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일생이 행복한 교육’이 돼야 한다.

‘행복과 혁신’을 약속한 진보 교육감

들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 교권을 바로 세워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교권이 바로서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보 교육감들이 ‘창의력과 봉사 활동’, ‘학생 개인의 개성과 인권 존중’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 앞에는 이 와 동떨어진 입시 제도, 그리고 대학 간 편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대학 입시는 학력에 따른 성적 순으로 결정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없이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6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